

市산하기관 잇단 허위·부실자료...행정사무감사 '파행'

테크노파크, 수치 불일치 '중단' 추후 보완 통해 감사 재개기로 관공공·도시공사도 지적받아 "행정 신뢰도 저하... 의회 무시"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허위·부실 자료를 제출해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시출연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다. 질의 과정에서 광주테크노파크가 전년도에 제출한 자료와 올해 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오기한 내용이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등 지역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1999년 개원했다. 정부·광주시·기관 등에서 출연금을 받아 운영된다.

강수훈 의원은 광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 임원 급여와 구축장비 활용률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2023년 직급별 급여 내역의 경우 작년 보고에서는 임원·단장·본부장 합산액이 2억55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023년 기준 5600만원만 지급했다고 축소 보고했다"며 "6급 공무원 급여 수치는 14억원에서 21억원, 7급은 8억 6000만원에서 13억원으로 크게 달라져 있다. 도저히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 수준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측은 "임원·단장·본부장 급여 3억4000만원이 잘못 기입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원들은 2억8400만원의 차이가 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 매출·폐업 현황도 서로 달랐다. 2022년 기준 매출을 6651억원으로 제출했으나 추후 3909억원으로 바뀌 보고했다. 장비 활용 관련 자료와 공사 입찰·계약 목록에도 수치 오기가 있었다. 또 152개 보육업체고용인원 2317명이 15.1

명으로, 매출액 6651억원이 4337억원으로 잘못 표기된 점도 추가 확인됐다.

자료의 부실함에 대해 의원들이 추궁하자 광주테크노파크 측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산업건설위는 더 이상 속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추후 보완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연기된 감사는 이달 중순 전 마무리될 예정이다.

허위·부실자료 제출은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지난 4일에도 지적됐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DRT) 광주투어버스와 시티투어버스에 대한 자료 제출에서 "운전자 유니폼과 버스 차량운행일지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실제 관광공사가 낸 2024년 유니폼 사진은 해당 운수업체에서 지난 2016년 다른 목적을 위해 촬영한 것을 부분 편집해 제출한 자료였다. 운영일지 또한 같은 차량에 다른 운전자가 등록돼 있거나 주유량이 기입되지 않는 등 미비점이 드러났다. 또 서임석 의원이 요청한 자료의 표단위가 원 단위·천 단위·백만원 단위 등 통일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오기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 의원들의 지적에 모두 공감하고 서둘러 진위를 파악하겠다"고 사과했다.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도 법률 고문 대리인 명단과 각종 위원 수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일 간 이어진 허위·부실 자료 제출을 두고 의원들은 '의회의 역할을 마비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수훈 의원은 "단순 오기였다"고 밝혔지만 자료를 임의 조작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행정 신뢰도를 현재처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민선 8기 행정이 얼마나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민낯'을 보여준 사례다.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들이 허위작성됐다. 엄중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교육감, 권도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이 5일 영암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열린 '김대중 100년 평화페스티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대중 정신으로 신냉전·기후위기 극복"

탄생 100주년 평화페스티벌 개막 김지사 "시대 관통 통찰력 가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생명의 길'을 주제로 평화페스티벌이 5일 막을 올렸다.

전남도도와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새김대중평화센터 등이 주관해 개최식, 기초강연, 특별강연, 주한 외교사절 초청강연,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권도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명자 카이스트 이사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는 '대한민국 100년, 김대중 100년'을 주제로

한 기초강연을 통해 "신냉전과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 위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했던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코스모 민주주의'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넷 잡슨 남아공 투투재단 최고경영자(CEO)는 '투투 대주교의 화해와 평화, 한국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한 기초강연에서 분열과 갈등을 딛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 남아공과 한국, 두 나라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투투 대주교와 김 전 대통령, 두 지도자의 정신이 오늘날 평화와 민주주의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리버 리치몬드 맨체스터대 교수의 '미국·중국·러시아 간 대결과 세계 평화의 길', 김명자 카이스트 교수의 '인류와 자연의 평화적 공생'을 주제로 한 특강이 이어졌다.

6일에는 차상균 서울대 교수의 'AI 시

대, 일과 삶의 새로운 조화', 주한동티모르·독일대사의 '역사적 유대, 김대중과 동티모르', '김대중, 독일인 시각으로 본 그의 유산'에 대한 주제강연이 예정돼 있다.

김 지사는 개회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었고,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위해 헌신했다"며 "전 지구적 위기 앞에 다시금 중요한 이정표로 주목받는 DJ정신이 널리 기억되고 길이 이어지도록 전남도가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앞으로 100년도 신냉전, 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 문제를 김대중정신으로 극복하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세상을 향해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오지현 기자 jinyun.oh@jnilbo.com

2024 장흥 바다살리기 실천대회

•일시 11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장흥군 용산면 소등섬 해안가 일대

지구 생물의 80%가 살고 있는 바다는 무한한 자원을 품은 생명의 요람입니다.

하지만 문명의 발달과 함께 급속한 산업화로 해양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청정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생태 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살아 숨쉬는 청정 전남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 바다와 접해 있는 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은 물론 모든 사람이 바다살리기에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